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영국 보험협회, 보험금지급거부를 공시 추진

- 영국보험협회(ABI)는 CI(critical illness)보험과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금지급거부율을 처음으로 공시하면서 향후 매년 정기적인 공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힘.
 - 금번의 보험금지급거부율 공시는 CI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험금지급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이 주요 배경이나, 최근 영국 법률위원회(Law Commission)의 보험계약법개정추진에 대한 보험업계의 선제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단행되었다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.
 - ABI(the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)는 회원사(보험시장의 90%를 점유)의 2008년 보험금 청구·지급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금지급거부율을 산출함.
 - CI보험은 건수 기준으로 볼 때 45,000건의 보험금 지급 청구에서 3,100건이 거절되어 약 7%의 지급거부율을 기록하였으며,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청구 보험금 중 약 12%가 거부된 것으로 나타남.
 - 사망보험의 보험금지급거부율이 3%에 불과하고, CI보험을 포함한 생명보험의 지급거부율도 10%(1억8천4백만 파운드)인 것과 비교해 볼 때 CI보험의 지급거부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.
- ABI는 CI보험의 2005년 지급거부율이 20%(건수기준)에서 7%로 낮아진 것은 업계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언급했으며, 소비자단체는 보장성보험금의 거부는 자칫 가계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함.
 - ABI는 건강상태 불고지로 인해 보험금이 거부되는 경우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모범사례를 정해 이를 업계에 권장하였으며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힘.
 - 한편, 소비자단체는 ABI의 보험금지급거부율 공시에 대해 찬성하며, 보험회사별로 공시되어야 소비자에게 보다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.
- 영국의 법률위원회는 향후 계약법개정으로 인해 계약자의 고지의무가 보험회사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응답하는 것으로 변경될 경우 현재의 보험금지급거부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함.
 - 영국의 대형사들은 이미 ABI의 모범사례를 적용시켜 보험금지급거부율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, 중소형사들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임.

(Financial Times 12/18, ABI 12/21)